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포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감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교회학교 여름 행사 진행중

지난 주간 유아부 교사수련회를 비롯, 사물부 성경학교와 소망부, 대학부의 수련회가 개최됐다. 유치부는 17일(토)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여 오늘은 오후 1시까지, 내일(19일)은 오후 3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주에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각각 교회당에서 19일(월) - 20일(화)까지 여름성경학교

를 개최한다.

유년부는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 아래 예배와 찬양 외에도 레크레이션, 비디오와 인형극 등 시청각 특별활동을 진행하며 둘째날에는 양재공원에서 오후 4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초등부는 새 예배당 건축현장과 외인 묘지

를 찾아 현장학습을 한다. 오후에는 올림픽공원과 여의도 수영장에서 특별활동을 한다.

또한 중등부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임마누엘수양관에서 21일(수) - 23일(금)까지 수련회를 개최한다. 특강, 경배와 찬양, 조별 활동, 모험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영성 훈련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교회학교의 남은 여름행사 일정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주제
유치부	이종윤 목사, 신미숙 전도사	7월 17일(토) - 19일(월)	교회당(유치부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유년부	이종윤 목사, 이상진 목사	7월 19일(월) ~ 20일(화)	교회당(유년부실)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리스도
초등부	이종윤 목사, 이성득 목사	7월 19일(월) ~ 20일(화)	교회당(초등부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중등부	이종윤 목사, 정홍재 전도사	7월 21일(수) ~ 23일(금)	임마누엘수양관(경기도 광주)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는 그리스도
고등부	이종윤 목사, 박귀환 목사, 정대일 전도사	7월 26일(월) ~ 28일(수)	한울수양관(경기도 양평)	고치시는 그리스도
청년부	이종윤 목사, 고정선 목사, 임동진 목사, 이순환 목사	8월 2일(월) ~ 5일(목)	추양수양관(속초시 설악동)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얼마 전 대형공연 하나가 치뤄졌다. 주최측에서는 홍보보다는 반대에 대한 부담을 더 의식하는 눈치였다. 수년 전 우리 교회도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거니와 많은 교회와 사회단체의 거센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마이클 잭슨 공연은 여러 가지 유감이 든다. 1인당 입장료가 최소한 30만원인 것이 그렇고 준비도 안된 공연에 대한 문화사대주의자들의 부질없는 찬사도 그렇다. 더욱 마음이 무거운 것은 이번에도 우리 모두가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이클 잭슨의 공연보다 더 저질적이고 내용이 없는 것들이 우리 나라 대중 문화시장에 판치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마이클 잭슨 열풍이 20세기 대중 문화 속에서 마치 표본인 양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인정받게 되면 이 같은 종류의 대중 문화 전체가 수용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비판의식을 가지고 대중 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과 경계를 해야 한다.

마이클 잭슨 공연 비판을 위한 충분한 예시와 대응 논리를 펴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어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서 거론되어야 할 최소한의 것을 간단히 펴려하고자 한다.

1. 저급 종교성으로 이미지화하는 변종(變種)

그는 대중 문화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그가 염두에 두는 종교성에 문제가 있다.

그는 한때 여호와의 증인을 광신적으로 추종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보다 천사

■ 지상감작 ■

대중문화 유감

이상진 (목사, 유년부 지도)

장 미가엘(영문 표기로 하면 마이클)을 더 부각시킨다. 그는 자신을 천사장 미가엘로 이미지화한 것이다.

이제 그는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그의 어떤 노래에서는 기도문과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혼합적인 종교성으로 문화적 이미지화를 꾀하고 있다. 앞으로 만약 그가 새로운 종교를 택한다 해도 그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변태에 불과할 것이다.

2. 사탄 숭배자, 뉴에이지(New Ager)

이것 역시 이미지화의 일면이라 할 수 있

다. 그는 자신의 노래에서 사탄을 숭배하고 있으며 사탄 숭배자들이 사용하는 양식을 수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반기독교적 뉴에이지 종교성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다.

마이클 잭슨은 비틀즈 이후 가장 뛰어난 대중적 예술가요 흥행인처럼 추앙받고 있다. 그의 천재성은 사탄적이며 반기독교적 문화의 도구가 되어 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맹목적 반대보다 신학적·문화적 논리 가운데서 합리적이고 면밀하게 비판하여 대안 및 극복의 방편들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문화의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이 종교성이다. 우리는 대중 문화 속에서도 종교적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중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와 그 양식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대중적인 동시에 종교적 예술인으로 표본화된 마이클 잭슨과 마이클 잭슨으로 대변되는 반기독교적인 '종교적 대중 문화'를 초극하기 위해 교회의 지속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흥미로운 것은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버렸다. 우리도 우리 논리 속에서 빨리 그를 폐기처분해야겠다.

이사야 강해

여호와께 찬양

이사야 25장 1-5절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24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1. 찬양은 성도의 의무다

성도는 찬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찬양대를 인도하는 지휘자는 자신이 먼저 찬송을 부르고 싶은 감동을 받아야 하고 또 찬양대가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이들에게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아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일 뿐 아니라 특권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가 찬양을 드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도는 계속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예언자는 놀라운 일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우려 모두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휘자의 직분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선지자는 감사 찬송한다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선지자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모든 성읍이,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이 찬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7족을 몰살시킬 것을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수 11장).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합니다.

(3)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4절).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친히 그들의 힘이 되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들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력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기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종운 목사

친히 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 찬송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결국 모든 이방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3.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

(1)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모방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예표로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하나님은 세상 권세자들의 교만과 권력을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들은 자연 조건과 인위적인 기술, 군사적으로 견고한 방어체제를 모두 갖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쓰레기더미로 만드셨습니다. 궁궐 같이 꾸민 값진 집과 외인이 자주 드나드는 고관의 가옥도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폐허가 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면 약한 자들의 내면적 쇠퇴를 막아 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심과 동시에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4)하나님은 포악하고 교만하 자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란 자신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노래를 그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주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5)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는 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심판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보호자이시며 보급자이시고 인도자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 민족과 교회와 가정의 주가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물로 드린 군인교회 헌당식

조남현 (대학부, 현재 군복무 중)

도솔교회 봉헌식을 하고 주일예배를 드린 날. 목사님께서 오시지 않는 날이라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뒷정리를 하면서 모처럼 한가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는 심한 바람에 교회당이 파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신우회를 조직하고 밤마다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군복음화를 위한 비전2020운동의 일환으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배당 건축면적 52평, 아이슬 판넬 구조로 재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이름도 시온교회에서 부대명을 따라 도솔교회로 개칭하고 6월 1일 헌당식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땅아를 전진하였던 것처럼 새 교회당을 짓는 동안 저희 180명 신우들은 교회가 완공될 날을 기다리며 연병장 스탠드 등 이곳 저곳을 전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공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목사님과 저를 포함한 몇몇 군종 그리고 공병 등 총 12명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밥먹는 시간만 빼고 종일 일을 했습니다. 하루 속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심정에 힘이 들어도 매일 매일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시멘트 65포를 손으로 혼합하는 작업이 가장 힘들어 몸살이 나기도 했지만 기도하며 힘을 얻고 다시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3주 후부터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당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 손으로 직접 지은 교회당을 보며 곳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았구나 하는 뿌듯함으로 마치 우리 몸의 일부와도 같아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생각에는 서울교회 건축도 성도 개개인의 기도와 헌신의 땀방울이 맺힐 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보람을 느낄 만한 교회당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하신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며 후손들에게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 대학부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서울교회 새예배당 건축을 위해 이곳 도솔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밤낮 눈물로 간구하시는 서울교회 성도들께 평안을 기원하며 도솔교회 군종 상병 조남현 올림.

'99전반기 주간성경공부

성적 우수자

1월부터 6월까지 90% 참여한 성도

- 제 1교구: 이용선 박순봉 이자혁 원복순
최무순 이갑연 유근종 최난수
주정희 송두심 오충례
- 제 2교구: 하영수 정하차 이경구 양옥자
남태순 이순례 이혜순 정연택
- 제 3교구: 최금자 정명숙 주화인 안분선
심재을 김인순 이옥녀
- 제 4교구: 이승민 김병숙 정경자 서옥덕
이남복 임훈규 김복녀 이보우
김은수 박순옥
- 제 5교구: 한길동 박창희 이광열 손재걸
백수남 이민화
- 제 6교구: 한금희 장양일 김종자
- 제 7교구: 황보추자 윤순란 신진성 박종민
윤운식 함은희
- 제 8교구: 여현진 김현주 김영식 양숙란
- 제 9교구: 윤봉준 조상희 유 산 최정숙
조명녀 김만선 강정옥 고영철
최경애 서춘식 김진숙 김찬웅
- 제 10교구: 윤찬오
- 제 11교구: 전배호 조옥섬 이우상 장정화
곽선자 이점숙 조정옥
- 제 12교구: 정희순 허인숙 김관홍 이옥현
김형택

●순례길에서●

저도 어머니처럼

조철기(집사, 제 4교구)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자면 새벽기도회에 다녀 오신 어머니께선 자녀된 우리들의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새벽잠을 깨운다며 투정을 부리면서 철없이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오심을 바라보는 이제서야 신앙의 철이 들어 내 생활 전부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으로 친히 본을 보이신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결혼하여 부모님을 떠나 이사를 다니며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다가 서울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고집하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저를 안타깝게 한 것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음을 생각할 때 자녀 양육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에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가정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는 것이 힘들때도 있지만 가정예배를 통해 말씀을 읽으며 찬양을 드릴 때마다 믿음이 차

츰 커지고 견고해져 이제는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게 되니 우리 가족 모두는 교회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 마음으로 따라와 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몰든 우리 부부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두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어머니는 76세의 노구에도 교회 봉사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시며 자녀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본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교회 사랑을 실천하고자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 몇몇 성도들과 함께 교회당 청소하는 일로 적게나마 그 본을 따르려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도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되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본을 보이려 합니다.

대학부수련회를 다녀와서

영적 치유를 얻은 3박4일

○... 이번 수련회가 대학부에서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들떠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뜻깊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지나쳤는지 도착하고 나서 곧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틀이 또 남아 있었고 목사님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찬양시간엔 마음이 열렸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정운)

○...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과 참다운 교제를 나누며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길 오랫동안 갈망했습니다. 이런 세계 하나님께서는 대학부수련회를 통해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셨으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분의 조건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김민정)

○... 임원으로서 먼저 수련회 운영과 프로그램의 진행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보다 한발 앞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안에서 그 음성을 갈구하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찬양, 기도 시간 중 많은 것을 체험토록 하셨습니다. 7월 16일 대학부 금요철야에서 우리는 역누를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유석)

○... 지금까지 대학부수련회 중 가장 긴 3박4일. 제게는 가장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짧은 시절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날 받은 뜨거운 믿음과 열기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길 기도합니다. (안재희)

○... 수련회 2주 전까지 몸이 피곤해 수련회에 참석치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데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제게 수련회는 너무 평온하고 편안했습니다. 셋째날 바닷가에서의 공동체 훈련 후 들렸던 목욕탕에서의 교제를 통해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많이 회복됐고 많은 힘이 축적됐습니다. (박성우)

○...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백에 들어간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로 분주한 까닭에 처음엔 조용히 우리안에 찾아와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초 기대와 계획보다 더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속한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 내기 원합니다. (오혜진)

○... 강원도 태백시 솔안골. 이제 그곳은 저의 영적 치유의 장소가 됐습니다. 망설임을 가지고 떠난 수련회지만 주님께서 둘째날 기도와

찬양 셋째날 말씀으로 다가가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매순간에 주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그란 주님의 역사속에서 나의 영의 변화됨을 느꼈습니다. 3박4일의 수련회가 마치 하루같이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나의 가슴속엔 성령님의 뜨겁게 역사하심이 남아 있습니다. (박성우)

농촌전도대에 참여합시다

올 여름 농촌전도대는 충남 금산 마장교회로 4일간(8/10-13) 파송됩니다. 농촌전도대는 효과적인 전도와 원활한 봉사를 위해 성도님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실 청·장년 또는 물품 금전으로 지원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봉사 분야 : 전도, 이·미용, 의료, 한방진료(침·뜸), 기타
- ▶ 필요 물품 : 물·연막 겸용 휴대용소독기(70만원), 경로당 들마루 2개(30만원), 도배·비닐장판 9평(13만원), 페인트·붓(7만원), 아동용 티셔츠 50벌(25만원), 대원용 티셔츠 70벌(42만원), 아동간식 50명 3회(15만원), 주민초청찬치 40명 3회(60만원), 전도용부채 500개(20만원), 수건 80개(40만원), 돌보기 50개(25만원) 등 총 347만원 상당.

탈북자를 위한 UN서명운동 현황

- ▶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20,170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목표의 60%에 도달했으며 국내 교회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 서명 수취 우수자 명단
 - 10,000명 이상: 박순봉 권사, 김선미 권사, 이수자 권사
 - 3,000명 이상: 홍성주 집사
 - 2,000명 이상: 박이준 권사, 이민화 권사
 - 1,000명 이상: 전기섭 장로, 최형열 집사, 김정란 집사, 권영옥 권사, 김인식 권사, 김현정 권사, 이계홍 집사

■ 동정 ■

- * 이번 주 식사는 천병희 권사 가정에서 제공.
- * 광동회 · 이지는 집사(3교구 포이다락방) 가정은 15일(목) 포이동 두리건축정보를 개업하고 감사예배(☎ 529 - 6520).
- * 루디아 제 6전도회에서는 식당에 주방용품을 기증.
- * 한나 제 1전도회는 19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

■ 이사 ■

- * 차복녀 권사 도봉구 쌍문동으로(☎ 992 - 6827).
- * 최광성 · 이정연 집사 방화동 삼익아파트로(☎ 663 - 9318, 661 - 5889).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의 여름행사를 위해
2. 비전2020운동을 위해
3. 충남 금산에 파송될 농촌전도대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